

12기 인도 뭄바이팀 월간 보고, 네 번째 이야기

HASSI, SHANTI MUMBAI: DEC.
웃어요, 평화 뭄바이 : 12월호

산띠?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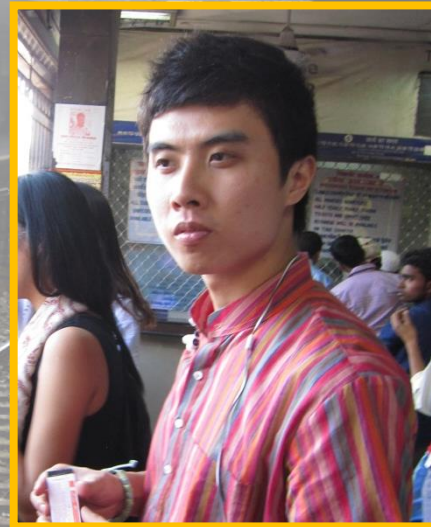
KHUSHI[쿠시]



CHAND[찬드]



JIYA[지아]



ROSHAN[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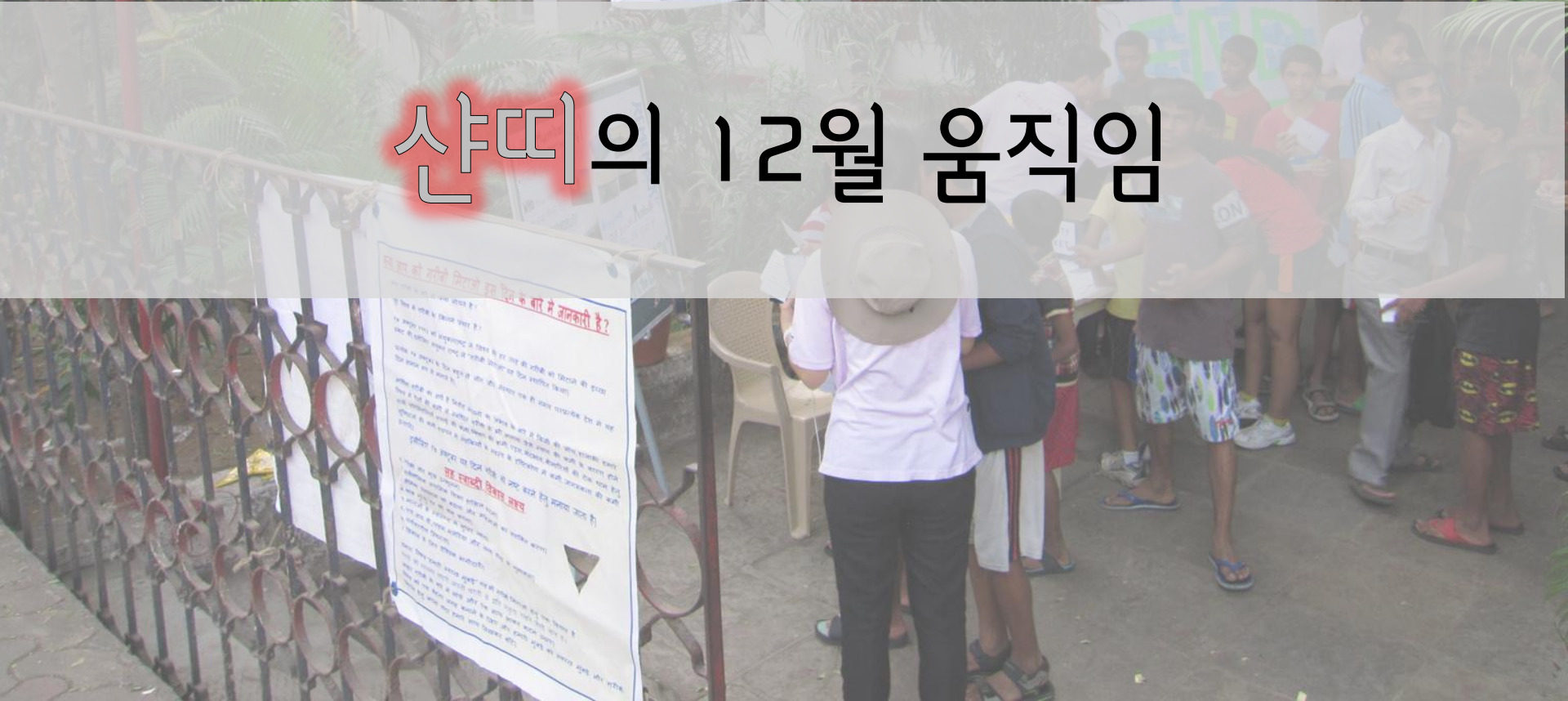
12월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스텝 미팅	3 파티준비	4 DCC	5 CFES/주후	6 DCC 한국음식파티
7	8 CFES	9 DCC / 미팅	10 CFES	11 보이즈홈 CFES	12 CFES/주후	13 주후
14	15 웨딩	16 DCC짜파게티 / 미팅	17 캠페인 준비	18 사후 캠페인	19 주후 크리스마스파티	20 사후 캠페인
21 ♥쿠시 생일♥	22 안데리 크리스마스파티	23 미팅	24 보이즈홈 아띠클래스	25 Merry Christmas	26 보이즈홈 아띠클래스	27
28	29	30	31	DCC - 까마티푸라 데이 케어 센터 CFES - 학비 지원 프로그램		
← 보이즈홈 캠프 →						



산띠의 12월 움직임



까마티푸라 데이 케어 센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또 있을까? 매주 화요일은 귀엽고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는 까마티푸라 데이 케어 센터에 가는 날이다. 이 날만 기다리며 항상 설렘 가득한 마음을 갖고 아이들과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을 보낸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그렇게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아이들의 학습을 담당하는 초띠는 아이들이 우리와 놀고 있을 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며 야단을 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다. 우리도, 아이들도, 초띠도 불편한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놀이를 해도 프로그램처럼 준비를 한 뒤 아이들과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겠다는 허락을 받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루는 한국에서 갖고 온 “짜파게X”라면을 데이케어 센터 아이들과 함께 먹기 위해 갖고 갔고 맵지 않고 달콤한 맛으로 아이들이 잘 먹을 거라는 기대하며 갔다. 하지만 억지로 먹는 아이들을 보는, 웃지 못할 민망한 상황이 일어났고 아이들이 남긴 그 많은 짜파게X는 모두 우리의 배로 들어가게 되는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초조한 마음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까마티푸라 데이 케어 센터



저번 달 데이 케어 센터 주변 아파트 커뮤니티를 위한 방문에 이어 이번 달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한 방법으로 ‘한국 음식파티’를 열었다. 그동안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지난 기수들이 왔다간 흔적들은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몇몇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국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파티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한국 소개와 음악을 좋아하는 인도사람들의 특징을 고려해 한국 뮤직 비디오와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고 사전에 만들어 놓은 파전과 감자전을 나누어 먹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언어적인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봉사자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찾아줘 봉사자 친구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찾아와준 아파트 주민 아이들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고 한국 소개에 대한 반응은 물론 파전과 감자전의 평가도 훌륭했다.

앞으로 까마티푸라에서 무엇을 할지는 모른다. 그저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는 무언가를 위해 지난 기수들에 이어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한 한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보이즈 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한다.” 는 말처럼 자주 보고 친한 사람에게는 더 신경을 써야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무더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생기는 안 보이는 장벽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 맺기는 어렵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이즈 홈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보통 식사시간,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 등을 포함해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계획해서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마냥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좋은 시간,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보이즈홈에 대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아이들과 특별히 뭔가를 같이 했거나 특별하게 남을 만한 기억과 추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떠나고 나면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보이즈 홈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평소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왔던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 피피티를 만들고 동영상을 준비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신에게 편지 쓰기” 를 하였다. 이 편지는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자신의 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등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난 뒤, 1년 뒤에 다시 찾아 올 크리스마스에 보내주고자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과거와 만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추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하는 아이들의 반응은 적극적이고 분위기도 즐거웠다.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신의 미래에 편지를 쓰는 일에 집중하며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목적을 다지는 아이들도 있었다.



보이즈 홈

그 이후에는 중간평가 이후부터 제안되었던 자존감 높이기(self-respect, 셀프 리스펙트)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존감 높이기 프로그램은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로 인해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긍정적인 꿈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하면 좋지만, 이 프로그램은 깊이 있는 대화가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나이가 어릴 경우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이즈 홈의 큰 아이들(11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으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3일차로 계획하고, 5명씩 총 5그룹을 만들었다. 그 그룹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배정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자원 봉사자를 한 명씩 배치하였다. 지야, 쿠시, 마니쉬(2일차부터 프리양카로 바뀜), 비디, 그리고 로샨 이렇게 5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각각 1그룹씩 맡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진행은 찬드가 하기로 하였다.

1일차- 풍선 옮기기, 몸으로 말해요 등 그룹 안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첫 날에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뇌 구조 그리기(자신의 머릿 속에 관심 있는 분야, 흥미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팀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를 통해서 아이들 본인이 평소 관심 있어하는 것에 대한 표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각 아이마다 무엇에 자신의 마음이 쏠려 있고, 어떤 분야, 또는 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를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2일차- 성취사건을 글로 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창하고 큰 사건이 아니라, 작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이루어낸 자신을 확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고자 하였다.

3일차- 비전리스트를 작성하고 미래에 대한 콜라주 만들기(우선 A4용지에 자신이 미래에 할 일,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등에 대한 비전리스트를 작성하고 연도와 월을 적은 것을 A2 용지에 잡지의 그림과 크레용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옮기는 작업)는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게 년도와 월까지 적으면서 미래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본인이 예상한 시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비전리스트와 콜라주를 통해 아이들이 이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보이즈 홈



마지막 3일차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셀프 리스펙트에 대한 피드백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의 피드백 혹은 사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회의 및 공유가 부족한 탓에 각 그룹의 진행자들마다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설명했다. 그로 인해 모든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적절한 설명, 그리고 이해를 온전하게 전달 할 수 없어서 일부 아이들은 프로그램에 흥미를 잃고 집중을 하지 못하기도 하여 아쉬웠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한 미래 콜라주를 마치고 난 뒤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성취 이야기를 할 때에도 몇명의 아이들은 처음에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어떤 것을 써야 할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성취한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쓰기 어려워 했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다리자 자신의 작은 성공, 노력에 대한 결과가 만족하고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모든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잘 전달하지 못했지만 다수의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일차까지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든 콜라주를 들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뒤에 보이즈 홈 외에 안데리 와이엠씨에이를 방문하는 다른 아이들, 혹은 어른들도 볼 수 있게끔 전시회를 가지려고 한다. 전시회는 그 전에 아이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할 예정이다.

주후 센터

주후센터에 가는 일은 활동지에 간다기보다는 친구의 집에 놀러가는 것에 더 가깝다. 주후센터를 가게 된지 세 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후센터에서 특별한 활동을 기획하는 일이 없다. 우리의 주요 활동지 중 유일하게 기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없는 센터이다. 일터이기보다는 놀이터에 가까운 그 곳에서 우리와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18명이 함께 쓰는 낡은 방을 캠프파이어장으로 만들고, 관광객으로 가득한 해변을 축구장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때로는 아이들의 만들기 숙제를 함께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면 우리도 옆에 앉아 책을 읽곤 한다. 밤늦게 찾아가 한국의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인도의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신나는 케이팝 뮤직비디오를 다운 받아가기도 한다. 내세울 활동 한 번 없었지만 부끄럽다기보다 사랑스러운 활동지로 소개하고 싶은 주후센터. 이제는 함께 볼리우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그러다가 또 케이팝 노래의 음을 흉얼거리며 손뼉을 치기도 하며, 우리는 이렇게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



주후 센터



주후센터는 지나간 라온아띠들에게도 따뜻한 놀이터이고, 주후 센터의 아이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나보다. 아이들은 종종 지난 라온아띠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보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A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줘.”, “B에게 보고 싶다고 전해줘.”라고 부탁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난 라온아띠들에게 엽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인도 제2공용어)든 힌디(인도 공용어)든 마라띠(मुंबई가 속해 있는 마하스트라 주의 공용어)든 편한 언어로 쓰면, 봄베이YMCA의 청년 자원활동가들에게 부탁해 번역을 하여 한국의 라온아띠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편지를 쓰면서 하나 재미있었던 점은 ‘언어’이다. 힌디나 마라띠로 써도 되었지만, 영어로 써 전달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영어를 물어보거나 영어를 잘 하는 친구에게 부탁하는 아이들도, 힌디나 마라띠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힌디나 마라띠로 쓰는 것도 어려워했던 작은 아이들도 있었다. 신이나 엽서를 잔뜩 집어 들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편지를 쓰기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라온아띠와 아이들과의 인연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다.

학교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마다 찾아가 아이들을 고루 보려고 계획했었지만, 주로 토요일마다 캠페인이나 봄베이YMCA의 행사가 잡히는 이유로 아예 방문하지 못하거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일찍 가지 못해 오후에 학교를 가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활동기간이 한 달 남았지만, 한 달 동안이라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요일을 변경할 계획이다.

빈곤 퇴치 사후 캠페인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주후 해변에서 Mumbai의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하며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을 주제로 캠페인을 했었다 이 캠페인의 과정과 결과를 봄베이YMCA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었고, 역사 등 다른 공간에서 한 번 더 진행하며 글씨만 완성한 다짐의 벽(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다짐하는 글씨를 쓴 작은 종이들로 모자이크하여 앤드포버티라는 글자를 완성하는 것)의 배경까지 채워나가는 것이 어땠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캠프와 중간평가를 마치고 적절한 사후캠페인을 고민하던 끝에, 본 캠페인에서 빈곤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하여 제기는 했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해보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캠페인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후 해변에서처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캠페인을 기획하기로 하였고, 안데리, 프록터, 나비봄베이의 YMCA 센터에서 사후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빈곤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2015년 한국 빈곤퇴치캠페인의 포스터를 힌디로 번역하여 엽서로 만들고, 빈곤의 다양한 종류를 적어 넣은 빈곤상자를 만들었다. 캠페인의 진행은 “당신에게 빈곤은 무엇입니까?”라고 적힌 엽서를 나누어주고, 빈곤상자에서 빈곤의 다양한 종류들을 꺼내보여 주고, 참여자가 생각하는 빈곤을 적어 넣기도 하며,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라 다양한 빈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교류하는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위해서는 본 캠페인의 주제였던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을 예시로 들기 위하여, 본 캠페인에서 사용한 사진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에는 다짐의 벽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YMCA의 피드백대로, 다짐의 벽에 다양한 종류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나의 작은 노력이나 생각들을 적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첫 사후캠페인 장소인 안데리 센터에 부스를 설치했지만, 안데리 센터에서의 수업이 끝나거나 시작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시작을 하여 사람들이 없자 불안하게 되었고 근처의 대학교까지 사람을 찾아나가게 되었다. 사람을 직접 찾아가고 만나는 시도는 좋았지만, 사람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게 되자 계획했던 역할분담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고, 부스가 비게 됨으로써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이나 부스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보이즈홈과 CFES 아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활기찬 캠페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부스에 서서 힌디가 부족한 우리를 대신해 설명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을 모셔오기도 하였다. 그런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아이들에게 이끌려 경찰서까지 찾아가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서장님까지 만나 캠페인을 설명하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된 날이었다.

빈곤 퇴치 사후 캠페인

아이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큰 캠페인이었지만, 사람을 모으는 데 급급했다는 점, 빈곤박스의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게 된 점, 다짐의 벽을 채우는데 급급한 면이 있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서로 나누게 되었고, 다음 캠페인에서는 사람을 모으는 데 급급하지 말자고 함께 다짐했으며, 빈곤박스의 경우에는 생각을 교류하는 박스보다는 다양한 빈곤의 종류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생각을 교류하는 것도 좋았지만 언어적인 한계가 있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었으며, 빈곤에 대한 생각을 적어 넣고, 다짐의 벽까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मुंबईसेन्ट्रल 지역의 프록터 센터에서 연 두 번째 사후 캠페인은 이렇게 한계점을 보완한 탓에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었다.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카메라의 고장으로 사진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과 가장 반응이 좋은 기념품인 배지를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공립학교 아이들과의 문제이다. 공립학교 아이들에게도 빈곤에 대하여 설명하고 함께 하고 싶었지만, 공립학교 아이들을 불러오자 센터의 간사와 자원활동가 친구가 아이들을 정리하여 내보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공립학교 아이들에게 빈곤에 대하여 설명한들 이해하고 깨닫고 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고 기념품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캠페인장을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센터에 수업을 들으러 오는 멤버의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실제로 공립학교 아이들 한 명을 부르자 여러 명이 우르르 모여 들며 설명하지 어려워지거나, 부스를 넘쳐뜨리는 일도 있었고 나누어준 엽서를 버리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빈곤을 퇴치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낮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립학교의 아이들과 캠페인을 함께 하기 어렵다는 모순된 현실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캠페인 장소는 나비봄베이이다. 나비봄베이의 벨라푸르YMCA센터는 청년자원활동가 모임이 튼튼하기로 유명하고 40여명의 청년자원활동가가 있는 만큼, 현지의 청년 자원활동가와 함께 하는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프록터 센터에서의 캠페인에서 빈곤박스와 빈곤의 종류 중 한 예시로 쓰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진전의 설명 비중이 비등하게 되어, 주제를 전달하기 모호할 수 있다는 한계를 깨닫게 되어, 다음 캠페인에서는 사진전 없이 진행해볼 예정이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역할의 분담에 있어서는 벨라푸르YMCA의 청년자원활동가들과 상의하여 정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CFES[학비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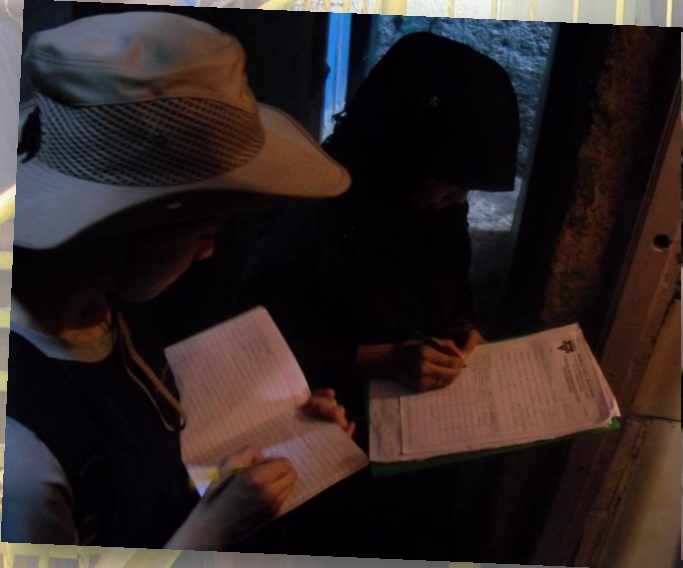
CFES란 Child and Family Extension Service(어린이 가정 확장 서비스)의 약자이다. 학비를 지원 받는 어린이 1명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인 가정 전체가 안데리 YMCA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비 지원이 중심이지만 안데리 Y 내의 옷 만들기, 머리 만지기, 컴퓨터, 엔지니어링과 같은 직업 교육부터 예방 접종까지 CFES 가정 전체가 비용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봄베이 YMCA 중 유일하게 안데리 YMCA만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현재 260명의 학생들과 180여개의 가정이 지원 받고 있다. 산데시는 CFES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비 지원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을 함께 했다.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CFES 담당 자원활동가인 산데쉬와 사피나와 함께 안데리 근처 슬럼을 방문하고 그들과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우리는 루야 파크, 주후 갈리, 가네시 나가르 외에도 두세 곳 정도의 슬럼을 더 들렸다. 이번 가정 방문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안데리를 보았다. 안데리의 현실을 본 것 같다고 말하는 팀원도 있었다. 안데리 Y에 머무는 두 달 동안 우리는 안데리가 부촌이라고 생각했다. 쾌적한 거리, 길가에 흔히 보이는 쓰레기통, 큰 규모의 물, 아파트 등. 그러나 우리 집 근처만 그러했고, 사실은 안데리 서쪽에만 스무 여개의 슬럼이 존재하고 있었다. 슬럼가 방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우리는 오랫동안 CFES 방문 소감을 나누었지만 워낙 개인적인 느낌이 방대하고 다양해 밑에서 개인소감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슬럼가를 방문하여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으나 산데쉬와 사피나가 가정 방문을 통해 보여주었던 활동가로서의 자세 또한 큰 배움이었다. 모든 CFES 아이들을 기억하고 인사하는 것은 물론 길거리의 할머니 또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산데쉬, 자신 또한 빈민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곳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지 안다며 이 곳을 위해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람이다. 임신한 몸으로 가정 집을 방문하면서도 더 부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던 사피나, 또한 피나는 YMCA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무슬림 여성으로 인도 내의 평범한 시각과 생활을 그로 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안데리 Y 집에서 살다보면 자주 공부를 하러 오는 CFES 학생들과 마주 친다.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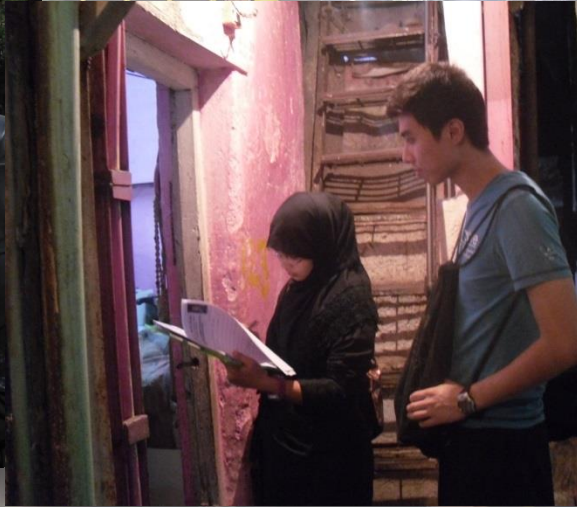
CFES[학비지원 프로그램]



찬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안데리 YMCA센터는 유일하게 CFES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다. 덕분에 돈으로 굴러가는 도시에서 또 다른 색의 사회를 위한 일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슬럼가 안 사람들 삶을 느끼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했던 산데쉬와 사피나의 생각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지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따뜻한 마음을 얻어오는 CFES 가정 방문. 하늘을 다 가리지 못한 지붕 밑에서 세상의 거친 운명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한참 무거워진다. 그런 나의 무거운 마음을 다독이는 것도 그 사람들. 좁은 집의 문 앞에 놓인 꽃 장식, 플라스틱 통을 잘라 구석에 심어 놓은 나무, 좁은 벽 한 켠에 모셔놓은 신, 잘 먹는다며 더 내어주는 음식들을 가진 그 사람들만이 나를 다시 따뜻하게 한다. 그 좁은 길에도 햇살은 내리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한 켠에 짜이 카페까지. 어디에서나 삶의 아름다움은 생생하게 존재한다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고향 같은 곳이다. 그대들과 나,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면 더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CFES[학비지원 프로그램]



쿠시: CFES는 내가 이제껏 경험했던 뭉베이 YMCA 프로그램 중 가장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가정 방문을 통해 나는 무심코 그냥 지나쳤던 수많은 직업들이 사실 우리들의 부모님 직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은 가슴이 뭉클한 것을 넘어서 약간 슬프기도 했다. 누군가가 생각나기도 하고, 너무나도 다닥다닥 미로처럼 붙어져 있어서 주소만 가지고 가정 방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여건이 어려운 집을 방문했을 때는 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렇거나 서로 달라야 하는 걸까 아주 원초적인 생각을 했다가 그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그릇을 보게 되는 순간 마음이 견뎌해질 때도 있었다. 쉽지 않은 일을 웃으면서 하는 산데쉬 옆에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따뜻한 시선을 배울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시민이 아니라 작은 일을 계속하는 소시민으로 살고 싶다..

로산: 풍족함이 넘치는 도시 속에 살아가는 경제적인 혹은 가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의 꿈을 위해 도와주고자 하는 YMCA의 뜻 깊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막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아이들이 간직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소원한다.

크리스마스 파티

주후YMCA에서.

12월 19일, 주후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파티가 있었다. 주후 아이들의 부모님이 다 센터로 모이시고, 주후 센터의 봉사자들도 다 모이고, 우리 산띠도 가고,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아이들의 아기자기한 공연을 보고, 아이들이 주는 장미꽃을 받고, 산타로 변신한 아비섹이 주는 사탕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비리아니를 나눠 먹고, 뛰어 놀고, 사진 찍고, 웃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주후는 참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인 것 같다. 전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주후 센터 옥상에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보겠다고 여러 번 팀 셀카를 시도한 것도, 전등을 들고 예쁘게 사진을 찍으려다가 전등이 뜨거웠던 것도 다 즐거운 기억이다. 참 예쁜 주후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안데리 YMCA에서.

12월 22일, 안데리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파티가 있었다. 이제껏 우리가 본 파티 중 가장 큰 파티였고, 사실이 그렇기도 하다. 이 날 YMCA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고 한다. 우리는 이 날 다시 부침개를 구웠다. 마침 음식을 팔 수 있는 코너가 있었고 한국 음식을 팔겠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격이 고민이 많았는데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한국 음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냐는 이야기로 가격은 20루피(한화 360원, 인도의 평범한 길거리 음식 가격이다.)로 하였고, 사실 그마저도 안 받고 테스트 해보라며 많이 권해서 적자가 나간 했다.

이 날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산타로도 변신해야 해서 참 분주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의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사탕을 멀리 멀리 뿌렸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오는 바람에 사탕을 골고루 뿌려주지 못한 점도. 그래도 아이들과, 안데리 주민들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즐긴 것만으로 재미 있었던 추억이 될 것 같다.

350PPM

이번 달 산띠의 350ppm은 “찬물로 세탁(손 빨래)을 하자” 였다.

12월의 350ppm을 선정하기 위해 다 같이 컴퓨터실의 인터넷에서 탄소를 줄이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였고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예시를 발견하였다. 백만명의 인구가 더운물 대신 찬물로 빨래를 한다면 옷 색깔은 더욱 선명하게 유지되면서도 **연간 25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글을 읽게 되었다. 여기서1명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1인당 연간 250kg의 이산화 탄소량의 방생을 줄일 수 있고, 월간 약 20.8kg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산띠는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이번 달 350ppm으로 찬물로 세탁하기를 다 같이 실천하기로 동의하고 한 달 동안 새로운 350ppm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2월 한달이 지나고 난 뒤 찬물로 세탁하기를 하였을 때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이전에는 빨래를 손빨래를 하는 큰 빨래 통 안에 넣은 다음, 더운물을 받아서 빨래의 때를 불렸다가 비누칠을 해서 빨았었는데, 이번 달부터 손은 조금 시리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더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350ppm인 것을 잊어 버리지 않고 찬물로 빨래하는 것을 잘 지켰다고 대부분의 팀원들이 잘 지켰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찬모군은 “원래부터 찬물로 손빨래를 잘해서 350ppm인 줄을 잊어먹고 있었다.” 라고 말할 만큼 이번 달 350 PPM은 정말 잘 지켰고, 산띠 4명이 이번 달에 줄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3.8kg이다.

산띠 생각

중간평가 이후 규칙수정에 대한 논의 후 “12시 취침”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 산띠에게 이 규칙은 어떤 의미일까?

지야: 아침형과 저녁형 인간의 문제는 인간세계의 큰 과제 중 하나이지 싶다.

로산: 처음에는 정말 잘 지켜졌고 계속해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 할 것들(보고서 작성, 아이들과 남은 시간에 할 일정 등)은 많아지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완전히 끝마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생각에 잠을 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12시 취침을 매일은 지키지 못하지만, 가능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루의 시작을 잘 하는 것으로 스스로 지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찬드: 일정으로 인해 몇 번 지키지 못한 것이 이제는 다시 일상이 된 듯하다. 규칙으로 만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쿠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12시 취침을 가까이 했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하기에 12시 취침이 너무 성가신 존재라 일도 하랴 취침 시간도 지키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 낮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핑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2시 취침과 멀어진 지금 그래서 나는 밤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다. 12시라는 시간과 상관 없이 취침 시간이 내일을 위한 절제로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산띠 생각

중간평가 이후 산띠는 매일 다른 주제로 ‘주제 나눔’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수 많은 주제를 나누며 스스로를, 서로를 바라본 산띠. 산띠에게 ‘주제 나눔’이란 어떤 의미일까?

지야: 때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아무리 말해도 듣는 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새 듣고 귀의 눈치를 보기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좋다.

로산: 한 달이 넘게 주제 나눔을 하면서 다같이 앉아 오늘 주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상대의 가치관, 이상향 등을 귀 기울이면서 듣는 것도 좋았지만, 간사님이 메일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게 되는 시간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매일매일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난 뒤, 또 다시 읽어 볼 때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나”를 찾아가는 뜻 깊은 시간인 것 같다.

찬드: 새로운 생각을 듣고 또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다. 자신의 이야기 말고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규칙은 주제를 벗어나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쿠사: 주제 나눔은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좋지만 귀찮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스스로 정리하기 힘들었던 주제들이 강제로 떨어지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끔 도와주었다. 내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낀 것이 웃기면서도 내게 참 다행스러운 점이였다. 어떤 주제가 나와도 끊임없이 같은 말을 하는 내가 신기할 때도 있었다. 끝으로 갈수록 많은 준비 없이 생각의 흐름대로 이야기 해야 했던 점과 나의 이야기에만 많이 집중한 점이 아쉽다.

그 외 활동



인도 결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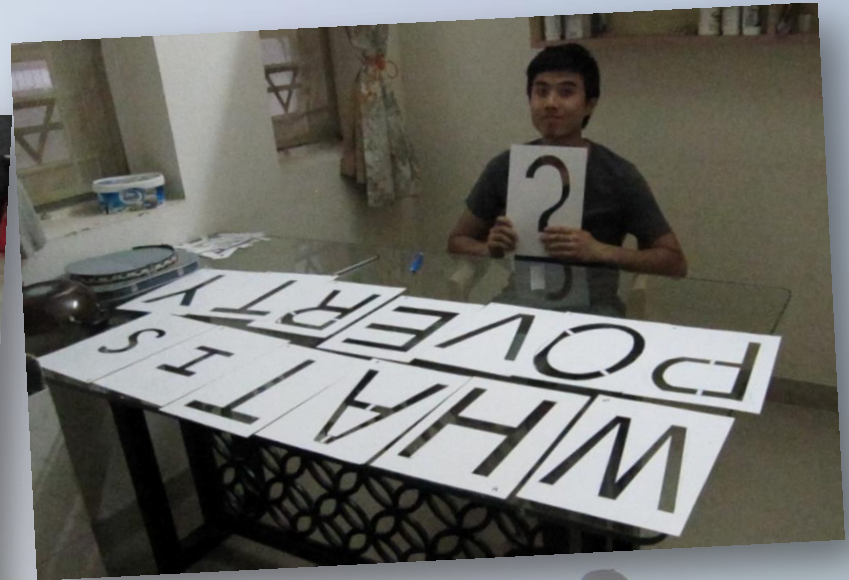
♥쿠시 생일♥





산띠의 12월 개인 에세이

12월, 그리고 로산



이전의 새해 맞이처럼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가족과 같이 모여서 작은 케이크에, 그리고 사람 수대로 채운 샴페인 잔과 함께 새해를 축하하고 서로 지난 한 해를 생각했을 때 마음 속에 찌든 때처럼 묵혀 두었던 아쉬움, 미련, 그리고 후회를 이미 지난 해를 보내듯이 떨쳐 보내고 새로운 해에는 더 열심히 살자는 말을 하고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 또는 지인 분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새해 축하 인사를 하였을 텐데... 2015년의 새해를 처음 나와 본 외국, 인도에서 맞이할 줄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그런지 익숙지 않는 곳, 낯선 분위기 속에서의 새해 맞이 이전과는 달랐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인도, 뭄바이에 오고 난 뒤의 4개월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였고, 머릿속에 넘쳐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 많이 힘들어했었고, 꽤 오랜 시간을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황무지 속에서 방황을 하는 것처럼, 나 홀로 탈출을 하고자 제법 많이 쓸쓸하게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12월, 그리고 로산

그렇게 지난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 혼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위의 두 가지의 생각들은 주변의 많은 도움과 여러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내 마음 안에 깊게 자리잡고 힘들게 한 짐을 덜어내게 되었다. 그래서 1월의 새해를 맞이 했을 때, 더 이상 나의 고민들로 꽤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같이 놓쳤던 이곳에서의 생활을 더는 버리는 일이 없이, 인도에서 남은 한 달을 누구보다 잘 보내고 잘 정리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게 나의 새해 첫 시작인 남은 1월의 목표이다. 아프더라도 조금만 아프고, 힘들 때는 “알쉬” 거리면서 조금 더 웃으면서, 남은 짧은 시간 좀 더 행복하게 있다가 돌아가고자 한다.



12월, 그리고 지아



12월은 중간평가 이후 마음을 다 잡고 약속했던 활동을 해나가는 한 달이었다. 그렇게 활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니 마음을 마무리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12월을 어떻게 보냈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이 곳에서의 시간이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 진하고 무겁다. 어느새 익숙해졌던 길가의 나무 하나하나가 허투로 보이지 않는 오묘하고 슬픈 순간이다.

그래도 이 나무에게는 쉽게 안녕을 말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남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막막하다. 현실적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다시 만나자는 말만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일까. 이제 간신히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있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있으면 나는 만남과 이별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곳에 온 것 같아서 미안하고 부끄럽다.

12월, 그리고 지야

12월 말에 캠프를 다녀오고 다큐멘터리 팀을 맞다 보니 어느새 일월도 훌쩍 지나갔다. 그새에 온 사무국에서의 최종보고 준비 공지 메일을 보고 있으니 여행의 취소로 여유로울 줄 알았던 남은 시간이 다시 촉박해진다. 시간보다는 내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이겠지.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무섭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드려야 할테다. 지난 네 달 동안 후회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번 한 달만은 후회를 두려워하면서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 애써야겠다. 뭄바이가 나에게 준 것, 아이들이,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 함께했던 라온아띠들이 내게 준 것들이 내 마음 속에 튼튼히 뿌리잡을 수 있도록.



12월, 그리고 찬드



행복하고 바쁜 한 달이었다. 잠시 쌓아두었던 열정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었던 12월이었다. 까마티푸라 데이 케어 센터 주변 아파트 사람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파티, CFES, 빈곤퇴치 사후 캠페인,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자존감 프로그램. 어느 것이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1월에 미루어 놓은 아쉬운 마음 일까? 아니면 어떤 의무감이었을까? 활동 내용도 괜찮았고 모두 잘 마무리 되었지만 사실 모든 활동들에서 준비부족이라는 의견이 모아지며 아쉬움을 남겼다. 그 중 특히 나에겐 보이즈 홈 아이들을 위한 자존감 프로그램은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자존감 프로그램이라고 제목을 붙이기에는 다소 민망한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 언어라는 핑계와 수많은 아이들의 관심으로 인해 깊은 대화를 해보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하나같이 보이는 60여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차별성 있는 자신만의 색깔이 있을 거라는, 그것을 보고 싶은 기대감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잘 마무리 되었고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더 큰 배움을 얻은 나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만큼 보완을 잘해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CFES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보고 싶은 미련이 꿈틀꿈틀거린다.

12월, 그리고 찬드

뭄바이 생활의 끝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 이제는 몸으로 느껴지고 있다. 만나는 아이들은 점점 더 자주 언제 가냐고 묻는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벌써부터 가지 말라고, 나도 같이 가자며 우는 아이도 있다. 뭄바이에 오기 전 마음을 주고 떠난 뒤 받을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사실 고민의 답을 찾기 보다는 하나의 고민이 더 늘어났다. 상처까진 아니겠지만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 벌써부터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 내가 이곳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한 기억일 것이다.



12월, 그리고 쿠시

12월은 많이 일하고 많이 배우는 달이었다. 처음에는 신나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즐거웠지만 점점 힘에 부치면서 신경질도 많이 부리고 슬픈 날도 많았다. 그렇지만 그 때도 꾸역꾸역 일을 하고 있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지막 주는 거의 버티다시피 한 것 같다. 그래도 일을 했다.

여기 일을 하러 왔기에 일을 열심히 하였느냐. 그것은 아니다. 다만 관계에서 오는 복잡함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 나 내 삶의 시선을 다양화 시켜보고 싶었고 우연찮게 알게 된 영어 소통자의 자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에 제격이었다. 돌이켜보면 공유할 수 있는 일도 나만의 일인 양 쥐고 있어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인상 찌푸리고 말하던 날이 많아 팀원들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다.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들이 배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다. 안데리 YMCA에서 작은 규모의 빈곤퇴치캠페인을 열 때 처음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거기서 조금함을 느껴 길을 돌아다니며 근처의 대학도 가며 빈곤퇴치캠페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설명은 풍부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명이 캠페인에 대해 잘 모르는 보이즈홀 아이들이 보기에는 능숙해 보였으려나. 아무튼 캠페인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갑자기 나에게 가야 할 곳이 있다며 나를 디앤나가르(우리 동네) 경찰서로 데려갔다. 가는 내내 나는 우리가 그 곳에 가도 되는 거냐며 걱정을 했지만 아이들은 그저 '괜찮다. 친하다. 나의 두 번째 집이다.'라고 말하며 나를 끌고 갔다. 10명 남짓 되는 아이들과 우르르 함께 경찰서로 간 것 같다. 나는 먼저 그 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분들께 머쓱하게 우리 캠페인을 소개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를 경찰서에서 가장 높은 분께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HEAD라고 했으니까 경찰서장 격인가. 나는 아연실색해서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 분은 무척이나 바빴지만 우리를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거기에 용기를 얻어 내가 마치 캠페인을 소개하러 일부러 이곳에 온양 소개를 하고 캠페인 기념품을 나눠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분께선 잘 간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다. 카메라가 없냐고 아쉬워하는 보이즈홀 아이들에게 나에게 없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도 나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었던 힘은 아마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나의 등 뒤에서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멍했던 것 같다. 두 번째 집이라고 나를 안심시키던 녀석들은 막상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었기 때문이다. 참 웃기고 가슴 따뜻한 해프닝이다. 캠페인을 잘 설명했고, 아이들도 경찰서장을 만나 YMCA 프로그램을 설명했다는 것에 부듯해하고, 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을 잘 넘기고 했기 때문인 듯하다.



12월, 그리고 쿠시

12월 초에는 안데리 YMCA에서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CFES를 통해 슬럼가에 사는 학생들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심결에 지나쳤던 청소부, 리샤 드라이버, 팻 보이(영화 촬영 기간 때 물과 짜이를 건네주는 일을 하는 사람), 벵글(인도 여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팔찌) 셀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우리들의 부모님을 만나볼 수 있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사신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부촌인 줄만 알았던 안데리의 슬럼가를 방문하는 일은 마치 우리가 주거 지역으로부터 차별 받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시멘트 바닥의 작은 집의 한 달 임차료가 4000루피(그 곳 대부분의 가정 한 달 월급이 약 8000루피이다.)인 것도 충격인데 이마저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누워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나는 역시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산데쉬라는 자원활동가가 보여준 태도가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야라는 소시민적 태도를 버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산데쉬는 물어 물어 찾아가야 하는 집에 도착해서 시간이 무한히 많은 것처럼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반갑게 인사하고, 장난 치고, 또 나에게 이 집들이 왜 지원 받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역시 슬럼가 출신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지 자신은 알고 있고, 그 곳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집에서 4명의 여자아이들의 학비 신청서를 받아 오는 길에, 쓰레기가 많고, 냄새가 나는 거리를 걸어오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산데쉬의 행동에 감동 받아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흘려버렸다. 그 말에 산데쉬가 엄청 크게 YES라고 대답해주어서 참 감동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지 않을까. 나 역시 내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세상이 나아진다는 믿음이 있는 실천적인 작은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물음과 다짐들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20일 정도 남았다. 다시 이 20일 동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정리일까, 배움일까. 부족했던 나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가슴 따뜻했던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경산 그리고 뭍바이, 곧 돌아갈 나의 지역,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지역, 두 곳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A person wearing a red shirt and dark pants is crouching in the center of a dirt path in a lush tropical garden. The garden is filled with various plants, including banana trees, palm trees, and large-leafed plants.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metal gate and a fence. The scene is brightly lit, suggesting a sunny day.

Fir Millinge !
또 만나요 😊